

# 송 사신단의 개경 游觀과 고려의 외교 공간 활용

이 승 민\*

1. 머리말
2. 송 사신단의 개경 체류 일정과 游觀地
3. 개경 游觀 공간의 외교적 활용과 성격
  - 1) 고려와 송의 외교 기념 공간
  - 2) 송 사신단의 제례 공간
4. 맺음말

## 1. 머리말

12세기 전반 고려의 외교는 동아시아 국제 정세에 따른 신중한 선택의 과정이 었다. 고려는 이미 11세기 후반인 문종 대부터 거란과의 안정적 관계를 바탕으로 송과 使行을 재개했고, 여러 차례 사신이 오고가며 문물 교류와 책봉 제의 등 양국의 외교 사안을 조율했다. 당시 송은 이른바 聯麗制遼, 즉 고려와 연대해 요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고려에 대한 우호적인 자세를 취했다. 그러나 이에 반해 고려는 송과의 사행을 재개했음에도, 거란과 매년 사신 왕래를 지속하며,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국제 정세를 살피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숙종 말에서 예종 초에 걸쳐 동아시아에는 본격적인 정세 변화가 일어난다. 여진은 완안부를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주변 지역을 압박해나갔다.

\* 연세대학교 사학과 박사후연구원.

거란은 여진의 세력 결집과 강화를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했으며, 점차 동아시아 국제 사회의 주도권을 잃어가게 되었다. 즉, 이 시기 동아시아는 거란이 점차 금에게 밀려나고 있으나, 금은 아직 동아시아 국제 사회에서 확고한 지위를 차지하지 못하고, 송은 이 때를 틈타 거란을 압박하기 위해 주변 국가와 연대하고자 하는 외교 활동을 펼치는 형국이었다.

고려도 이러한 국제 정세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했다. 이미 예종 10년(1115) 아골타가 황제를 칭하면서 금을 건국했다는 것을 파악했고,<sup>1)</sup> 8월에 요로부터 여진정벌을 위한 지원군 요청을 받는 등<sup>2)</sup> 정세의 변화가 확연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듬해 고려는 4월 거란의 연호를 중지하고 갑자를 사용했으며<sup>3)</sup> 8월 내원성이 금에 의해 함락되면서<sup>4)</sup> 거란과의 외교는 사실상 명목만 유지한 채, 금이 제의한 형제관계로서 양국의 관계가 재정립되었다.<sup>5)</sup> 한편으로 고려는 송 국자감에 고려인을 입학시키고,<sup>6)</sup> 여러 방면의 문물 교류를 추진하는 등 송과의 외교 관계를 우호적으로 구축하면서도, 책봉과 같은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외교 형식은 맺지 않으면서 일정한 외교적 거리를 유지했다. 다시 말하면 고려는 요금 교체기의 정세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송과 우호적 관계를 만드는 신중한 외교 노선을 견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예종이 사망하고 인종이 즉위했다(1122). 송은 고려와의 관계를 강화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면서 국신사로서 노윤적과 부사 부목경을 보내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들은 고려로 출발하려다 예종의 사망 소식을 듣고 제전·조위사를 겸하게 되었다.<sup>7)</sup> 이 때 고려에 온 사신단의 여정은 提轄人船禮物을 담당했던 서공이 쓴 『선화봉사고려도경(이하 고려도경)』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서공은 본인이 보고 들은 고려의 역사, 도성, 건물, 인물,

1) 『고려사』 권14, 예종 10년 정월.

2) 『고려사』 권14, 예종 10년 8월, 경자. 고려는 요의 사신들이 되돌아갈 때까지 출병요청을 미루며 받아들이지 않았다(같은 책, 예종 10년 11월 신묘).

3) 『고려사』 권14, 예종 11년 4월 신미.

4) 『고려사』 권14, 예종 11년 8월 경진.

5) 『고려사』 권14, 예종 12년 3월 계축.

6) 『고려사』 권14, 예종 10년 7월 무자.

7) 『宣和奉使高麗圖經(이하 고려도경)』 권25, 제전.

풍속, 해로에 대해 정리하여 이를 휘종에게 전달하기 위해 책을 서술했다. 그 서문에서 서공은 자신의 이목이 미치는 곳에 대한 내용을 널리 채집하여, 중국과 다른 것을 정리하고, 건국과 정치 체제, 풍속과 사물들에 대한 차례를 구성했다고 한다.<sup>8)</sup>

이와 같이 『고려도경』은 고려가 기록에 남기지 않았던 여러 모습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송 관계 연구의 주요한 자료로 활용되었다. 이에 대한 번역 및 역주 작업을 비롯하여 『고려도경』 편찬과 고려의 모습을 다룬 연구 성과는 일일이 거론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sup>9)</sup> 그 가운데 개경의 경관과 관련하여 순천관의 설치과정과 공간의 성격에 대한 연구,<sup>10)</sup> 서공의 화이관과 개경의 경관·개발을 다룬 연구,<sup>11)</sup> 송 사신단의 접대를 맡은 반사의 임명과 활동 대한 연구,<sup>12)</sup> 개경에서 이루어진 공식적인 의례와 연회에 대한 연구,<sup>13)</sup> 개경 내의 시장을 비롯한 상업 시설에 대한 연구가 있다.<sup>14)</sup>

다만, 송 사신의 개경 여정에 대한 연구는 찾기 어려운데, 『고려도경』의 상당 부분이 개경 내에서 보고 들은 것을 묘사한 것이라는 점을 볼 때 이러한 현황은 의외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송 사신단이 개경이 머물렀던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서공을 비롯한 송 사신단은 개경에 머물면서 고려 국왕을 만나 행하는 의례

8) 『고려도경』 서문, “謹因耳目所及 博采衆說 簡去其同於中國者 而取其異焉 (중략) 亦粗能得其建國立政之體 風俗事物之宜 使不逃乎繪畫紀次之列”

9) 『고려도경』에 관한 연구 성과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상당히 축적되어있다. 본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다음의 논저를 참고했다. 김한규 역, 2012 『사조선록 역주 1』, 소명출판; 한국고전번역원, 2005 『고려도경』, 서해문집; 이경록 외, 2005 『고려도경』, 황소자리; 이진한 외, 2016~2019 『『高麗圖經』 譯註』(1)~(11) 『한국사학보』 65~76; 김병인, 2018 『『고려도경』에 비친 고려인들』 『한국중세사연구』 55; 김보경, 2011 『『고려도경』과 고려의 문화적 형상』 『한국한문학연구』 47; 김수연, 2009 『『고려도경』 연구의 동향과 활용 가능성』 『한국문화연구』 16; 장남원, 2009 『필사본 『고려도경』(高麗圖經)의 유포와 의의』 『한국문화연구』 17.

10) 김창현, 2011 『고려시대 대명궁 순천관과 객관』 『고려 개경의 편제와 궁궐』, 경인문화사.

11) 정은정, 2018 『이방인 서공이 본 皇都 開京과 실상』 『한국중세사연구』 55.

12) 金圭錄, 2015 『고려중기의 宋 使節 迎送과 伴使의 운용』 『역사교육』 134.

13) 김성규, 2014 『‘선화봉사고려사절단’의 일정과 활동에 대하여』 『한국중세사연구』 40.

14) 강병국, 2018 『『高麗圖經』의 坊市와 長廊에 대한 기록 再考』 『역사학연구』 70.

와 연회 외에도 개경의 주요 공간을 둘러보았으며, 이때 보고 들은 내용들을 토대로 개경의 공간들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그럼에도 공식적으로 고려의 기록에 남은 제전·조위 의례와 연회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여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리되지 않았다.

송사신단이 조정에서 진행되는 의례와 연회를 제외하고 개경의 공간을 다니는 것은 ‘游觀’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유관은 일반적으로 현재의 ‘觀光’이나 ‘遊覽’의 범주에 해당하는 뜻이다. 하지만 『고려사』와 『고려도경』에서 ‘관광’은 대개 “觀光上國”과 같이 상국을 대상으로 한 용례로 사용되며, 서긍 역시 연회와 돌아다니며 구경하는 것을 游觀이라고 구분하고 있다.<sup>15)</sup> 즉, 유관은 현대의 ‘관광’과 통용될 수 있지만, 고려시대의 관광 용례는 上國의 개념과 짝을 이루는 외교적·문화적 개념이기 때문에 조정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개경의 다른 공간을 방문한 활동을 유관으로 지칭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송 사신단의 유관과 그 공간을 분석하는 것은 당시 양국의 외교적 입장과 국제정세를 유관이라는 문화적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작업이다. 송 사신단이 개경의 곳곳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살펴보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들의 유관과 그 공간은 고려 측에서 적절하게 통제하는 가운데 이루어졌을 것이며, 고려의 관원과 항상 동행하였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개경에서 송 사신단에게 보여주고 싶은 공간들을 고려가 선정하고 안내했으며, 이는 당연하게도 고려의 외교적 목적에 부합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고려도경』에 서술된 개경 내 주요 공간들의 기록을 분석하여, 송 사신단의 주요 유관지를 확인하고, 고려가 안내한 공간의 외교적 활용과 성격을 확인하고자 한다.

15) 觀光은 『고려사』와 『고려도경』에서 모두 上國의 문물을 보는 것을 지칭하는 용례로 쓰인다(『고려도경』 권3, 성읍, 누관 “王城昔無樓觀 自通使以來 觀光上國 得其規模 稍能治(중략) 王府之東 二樓臨衢 不見標榜 簾幙華煥 聞皆王族游觀之所”; 『고려사』 권14, 예종 11년 6월 을축 “乃遣諸生 觀光上國”; 『고려사』 권16, 인종 10년 5월 “重有觀光之請”). 游觀의 개념은 서긍이 접반과 관반 등 고려에서 만난 인물을 설명하면서 그들과 더불어 연회와 유관을 했다고 설명하는 것에서도 확인된다(『고려도경』 권8, 인물 “其相與燕樂游觀”).

## 2. 송 사신단의 개경 체류 일정과 游觀地

송 사신단이 송과 고려를 왕래한 해도와 일정은 『고려도경』 권34~39에 걸쳐 상세히 서술되어 있다.<sup>16)</sup> 사신단은 5월에 명주 정해현을 출발하여 바다를 건너 6월 2일 고려 측 지역의 협계산으로 들어왔고, 해안을 따라 올라와 열흘 후인 12일 예성강에 입항했다. 다시 송으로 돌아가기 위해 서교정에서 출발한 일자가 7월 13일이며, 예성항에서 출발한 것이 15일이니, 대략 한 달 가량을 개경에서 머물렀던 것이다. 개경에서 머문 한 달 동안 송 사신단의 주요 일정은 대개 조정과 순천관에서 이루어지는 의례와 연회로 구성되었다. 『고려사』와 『고려도경』에서 확인되는 사신단의 일정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송 사신단의 개경 체류 일정

월 일	내 용	전 거
6월 13일	육로로 왕성으로 들어감.	고려도경39, 海道
	국신사 예부시랑 노윤적, 중서사인 부목경이 음.	고려사15, 인종 원년 6월
6월 19일	회경전 조서 전달	고려사15, 인종 원년 6월
6월 22일	혼당 제전·조위 의례	고려사15, 인종 원년 6월
6월 26일	송산묘 제례	고려도경17, 祠宇
7월 2일	안화사 능인전 배례, 飯僧	고려도경17, 祠宇
일자 미확인	순천관 拂塵會	고려도경26, 燕禮
	순천관 5일 주기의 연회	고려도경26, 燕禮
	순천관 過位之禮 2회	고려도경26, 燕禮
	보제사 제례	고려도경17, 祠宇 · 16, 官府
	동신사 제례	고려도경17, 祠宇
7월 10일	노윤적 등이 귀국, 왕이 표문을 부침.	고려사15, 인종 원년 7월
	회경전 배표례·배표연, 신봉문 門餞	고려도경26, 燕禮
7월 13일	순천관 출발, 西郊 송행.	고려도경26, 燕禮 · 39, 海道
7월 15일	大舟에 오름.	고려도경39, 海道

16) 『고려도경』의 기록을 토대로 양국의 해로를 분석한 연구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祁慶富, 1996 『高麗圖經의 遠洋船隊와 航海技術』, 『정신문화연구』 64; 문경호, 2010 『1123년 徐兢의 고려 항로와 慶源亭』, 『한국중세사연구』 28; 2016 『1123년 서경의 고려 항로에 대한 재검토』, 『역사와 담론』 78; 허경진, 2007 『고려시대 송나라 사행해로 누정의 변천 연구』, 『동북아문화연구』 12.

정확한 일자가 확인되는 것은 6월 19일 회경전에서 이루어진 受詔 의례, 22일의 예종 국상과 관련한 祭奠·弔慰 의례, 승산묘와 안화사에서 일정, 배포하는 의례와 연회, 신봉문에서 이루어진 송별연 등이다. 보제사와 동신사의 경우, 송사신단이 제례를 설행한 것은 확인되지만 일자는 알 수 없다. 그 외 순천관 내에서 이루어진 불진회와 과위지례, 연회 등도 정확한 일자가 확인되지 않는다.

사신단의 일정은 공간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순천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館會이다. 사신단이 순천관을 들어가면 고려 국왕이 관원을 보내 拂塵會라는 연회를 열었으며, 이때부터 5일에 한 번씩 연회를 열었고, 또한 관반관과 정사·부사가 각자의 숙소에 초청하여 過位之禮를 열었다고 한다.<sup>17)</sup> 이에 따라 불진회가 입성한 날인 13일에 개최되었다면 5일에 한 번씩 5회의 연회가 가능하며,<sup>18)</sup> 과위지례는 서로 한 차례씩 열렸으므로 모두 여덟 차례의 관회가 열린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둘째, 궁궐에서 열리는 의례와 연회이다. 사신단이 입경한지 7일째 되는 날 회경전에서 조서를 받았고, 이후 예종 국상에 대한 제전 의와 조위의, 의례 이후의 연회, 사신단이 떠나는 때에 맞추어 배포례와 배포연, 문전까지 의례와 연회를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순천관과 궁궐을 제외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유관과 의례가 있다. 우선 사신단이 떠날 때 마지막으로 이루어지는 서교정에서의 환송 연회를 제외하고는 대개 개경 내 주요 사우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의례들이 이에 해당한다. 승산묘, 보제사, 동신사에서 이루어지는 사신단의 제례와 안화사 능인전 배례와 반승은 송사신단이 주체가 되어 이루어지는 의례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송 사신단은 의례와 연회를 목적으로 개경의 공간들을 오갈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개경 공간에 대한 이해와 감상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서궁을 비롯한 송 사신단이 자유롭게 개경을 둘러보는 것을 불가능했으며, 순천관에 체류

17) 『고려도경』 권26, 燕禮, 館會.

18) 송 사신단이 순천관에 도착한 날은 인종 원년 6월 갑오(13)이며, 5일에 한 번씩 연회를 했다면 6월 기해(18)·갑진(23)·기유(28), 7월 갑인(3)·기미(8)에 연회가 열렸을 것이다. 순천관을 출발한 것이 7월 갑자(13)이며, 이 날은 서교에서도 국왕이 별도의 연회를 열었기 때문에 순천관 연회는 없었다고 한다면 총 5일에 한 번씩 열었던 연회는 모두 5회가 개최되었다고 보인다.

할 때나 유관할 때에는 고려의 관원들이 함께 했다.<sup>19)</sup> 고려에서는 사신단의 움직임을 면밀하게 관리했다. 당연하게도 순천관의 출입은 군사들이 지키고 있었으며, 관사 내에서는 고려의 관반사가 함께 있었다.<sup>20)</sup> 순천관에는 사신단과 관반사가 머무르는 공간이 가까이 위치하고 있었다. 순천관 正廳 뒤로 마련된 낙빈정을 중심에 두고 좌우에 정사와 부사가 머무르는 방이 있었고, 內廊의 12位는 상절이 나뉘어서 거처했으며, 西位의 남쪽에는 관반관의 처소가, 북쪽에는 조서를 봉안하고 도관을 머물게 했다고 한다.<sup>21)</sup> 관반사는 순천관에서 함께 머물면서 객관 밖으로 자유롭게 출입하지 못한 사절을 대신해 그들의 요청을 고려 조정으로 전달하는 임무와 공식 의례에서 정사와 부사를 수행하는 역할을 맡았다.<sup>22)</sup>

다시 말해 순천관에 고려 관반사가 머물면서 사신단에 대한 밀착된 접대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숙소 주변에 군사를 세워 호위하게 하는 것 외에도 관반사가 같은 공간에서 숙식하도록 하는 것은 고려가 송 사신단 접대에 만반을 기했다는 뜻과 함께 사신단의 개경 체류 과정에서 사신단의 외교적 입장과 동향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인다. 일례로 거란 사신단의 경우를 보면, 고려에서 사신단에 대한 근거리 접대가 일반적으로 행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선종 9년(1092) 賀生辰을 위한 사신단의 관반을 맡은 최사추는 정사 왕정이 매일 밤 혼자 글을 쓴다는 것을 듣고, 계책을 써서 그 문서를 손에 넣어 선종에게 바쳤다.<sup>23)</sup> 송에 대한 관반 업무 역시 송에 대한 접대의 성의를 다하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사신단의 행동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나아가 상대국의 정세를 살피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19) 『고려도경』 권8, 인물 “爰自相見 以迄言旋 其相與燕樂游觀 揖遜之儀 文采雍容 有足觀者”

20) 관반사는 접반사와 구분되는 것으로 송 사신이 예성항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은 이후 차정되었으며, 사신단 일행이 순천관에 도착하면 설행되는 연회에 참여하는 것을 시작으로 객관 내에 상주하면서 사신단에 대한 접대 업무를 시행했다(金圭錄, 2015 앞의 논문, 166면).

21) 『고려도경』 권27, 관사, 순천관.

22) 金圭錄, 2015 앞의 논문, 179-180면. 인종 원년 송 사신단의 관반을 맡은 인물은 동지추밀원사 김인규와 병부시랑 이지미이다(『고려사』 권15, 인종 원년 6월).

23) 『고려사』 권96, 열전9, 최사추. 왕정의 글은 요가 오랫동안 태평하여 군비가 소홀해졌으며, 송은 남하를 토벌했다는 내용이었다.

서공에 따르면 송 사신단의 개경 체류 기간 동안 5~6차례에 걸쳐 순천관 밖으로 나갔으며, 『고려도경』의 내용은 수레를 타고 지나가거나, 의례나 연회 중에 본 것을 정리했다고 밝히고 있다.<sup>24)</sup> 다시 말하면 서공이 언급한 개경의 여러 공간을 모두 직접 발로 디뎠던 것은 아니고, 일부는 지나치며 보고, 그것에 더하여 고려 관원의 설명을 듣고 서술했던 것이다.<sup>25)</sup> 서공이 직접 가보고 겪어서 쓴 공간과 그렇지 않은 것은 『고려도경』의 내용을 통해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고려도경』에서 개경 내 공간은 성읍(권3), 문궐(권4), 궁전(권5·6), 관부(권16), 사우(권17)로 편성되었으며, 그 세부 항목에서 國城, 樓觀, 民居, 坊市, 宮殿, 臺城·國子監·倉廩·府庫·藥局·囿園로 구성된 官府, 복원관과 안화사 등이 포함된 祠宇로 추릴 수 있다. 이 가운데 국성, 누관, 궁전과 관부 중 궁궐 내의 공간과 광화문 주변은 대개 조정에서 이루어진 의례와 연회 공간과 그 행로에 해당한다. 또한, 민거와 방시는 장소를 특정하기 어렵지만, 아마도 의례를 위해 주요 공간을 오가면서 본 풍광을 묘사했을 것이다.

송 사신단이 궁궐을 제외하고 직접 방문한 공간은 관부와 사우를 분석하면서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고려도경』의 관부와 사우 편을 보면 일부 항목은 서공이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일부는 지나치면서 들은 내용을 설명하는 등 그 내용에서 차이를 보인다. <표 2>는 관부의 주요 항목에서 그 위치와 공간을 묘사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 2> 『고려도경』 권16, 관부 목록

		관부명	위치	공간 묘사	구분
1	臺省	상서성	승휴문 안	[내부] 문, 兩廡, 堂.	행로
		중서성·문하성·추밀원	상서성 서쪽, 춘궁 남쪽	[외부] 문, 각 관청의 위치.	행로

24) 『고려도경』 권1, 서문 “凡出館不過五六 而驅馳車馬之間 獻酬爵俎之上 耳目所及 亦粗能得其建國立政之體 風俗事物之宜 使不逃乎繪畫紀次之列”

25) 정은정은 서공이 개경 내 궁궐 전각, 민거, 방시는 직관했지만, 산야와 빈터 등은 원거리 조망이었다고 지적했으며, 일부는 채록에 의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정은정, 앞의 논문, 49면, 61-62면). 다만, 이 연구에서는 개경 내 관부와 사우 공간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예빈성	건덕전 앞쪽		행로
	팔관사	승평문 동쪽		행로
	어사대	좌동덕문 안		행로
	한림원	건덕전 서쪽		행로
	상승국 · 군기감 · 합문 · 대영창 · 우창	왕이 거하는 내성		행로
	상서호부	광화문 밖 관도 북쪽		행로
	공부 · 고공 · 대악국 · 양온국	상서호부 동쪽	[외부] 문, 標名.	행로
	병부 · 형부 · 이부 · 삼사	광화문 밖 관도 남쪽	[외부] 문	행로
	주전감	광화문에서 동남 수십보		행로
	장작감	주전감에서 조금 북쪽		행로
	감문위 · 천우위 · 금오위	북문 안	[외부] 금오위는 조금 동 쪽에 가까움	행로
	대시사 · 경시사	남대가	[외부] 동서로 마주봄	행로
	관현방 · 궁전사 · 복두소 · 접천대	외성 안		행로
	개성부	성에서 40리		채록
2	국자감	舊 남쪽 회빈문 안 수 예현방	[외부] 문, 榜 “國子監” [내부] 宣聖殿兩廡, 齋舍.	행로
3	창름(우창)	내성의 안	[외부] 牆垣, 문 [내부] 곡식을 쌓은 모습, 거적, 쌓은 곡식의 높이 등.	행로
4	부고(봉선고)	광화문의 동쪽 순천관 관도 북쪽	[외부] 門, 담 넘어 보이 는 모습. [내부] 堂, 樓, 榜 “貯水 防火”	행로
5	약국	보제사의 동쪽	[관원] 綠衣木笏	행로
6	감옥[囹圄]	관도의 남쪽	[외부] 형부와 마주봄. 墉, 등근 형태의 외부 구조, 屋蓋.	행로

관부는 모두 6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이 가운데 첫 번째 臺城은 서궁이 파악한 주요 관청의 이름과 위치, 업무를 나열하고 있다. 건물 내부 구조에 대한 설명은 상서성이 유일하다. 대개는 밖에서도 지나치면서 확인할 수 있는 건물의 위치와 방향 정도만 기록했다. 아마도 대성에 기록된 관청들은 대개 송 사신단

이 회경전 등 주요 궁궐 공간에서 의례를 위해 이동하면서 확인한 내용으로 짐작된다. 광화문을 벗어난 개경의 공간과 개성부는 행로 중 지나친 곳과 고려 관원에게 들은 내용을 함께 서술한 듯하다.

별도의 항목인 국자감, 창림, 부고, 약국, 영어는 위치와 건물과 인물에 대한 묘사가 모두 기록되어 있어 서공이 직접 본 곳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서 둘러본 것 외에 특정한 행사가 행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행로 중에 지나치거나 들린 공간일 것이다. 예를 들어 국자감에 대한 서술은 서공이 보고 들은 것을 어떻게 조합해 서술했는지 잘 보여주는 예이다.

국자감은 옛날에는 남쪽 會賓門 안에 있었다. 앞쪽에는 큰 문이 있고 국자감이라는 榜이 있다. 중앙에는 宣聖殿과 兩廡를 세웠고, 齋舍를 만들어 여러 학생들을 머물게 하였다. 옛날 규모는 매우 협소했으나 현재는 禮賢坊으로 옮겼으니 學徒가 점차 많아져서 그 규모를 넓힌 것이다.<sup>26)</sup>

서공은 국자감의 옛 위치와 건물들의 구조와 모습을 설명하고, 현재 예현방으로 위치를 옮겼으며, 학생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마무리하고 있다. 글의 흐름을 보면 현재의 국자감이 아닌 옛 국자감 건물의 구조를 설명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서공이 국자감에 직접 방문하지는 않았으며, 회빈문 쪽의 행로 중에 옛 국자감 건물을 보고 관련 내용을 들은 것일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별도의 항목으로 국자감을 설명한 것은 고려의 유학 교육과 그것에 미친 송의 영향력을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예종 10년(1115)에 고려에서는 김단을 포함한 5인을 송의 국자감에 입학시킬 것을 요청했고, 송에서도 이를 허락하는 등<sup>27)</sup> 양국이 유학을 매개로 교류하고 있었던 배경도 작용했을 것이다. 이에 덧붙여 서공은 고려에서 관인을 뽑는 제도에 대해 송의 영향력이 미쳤다는 점 역시 강조하고 있다.<sup>28)</sup>

26) 『고려도경』 권16, 관부, 국자감 “國子監 舊在南會賓門內 前有大門 榜曰國子監 中建宣聖殿兩廡 關齋舍以處諸生 舊制極隘 今移在禮賢坊 以學徒滋多 所以侈其制耳”

27) 『고려사』 권14, 예종 10년 7월 무자; 같은 책, 예종 11년 6월 을축.

28) 『고려도경』 권40, 동문, 유학.

한편, 이와 달리 창림과 부고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우창과 봉선고를 각각 구체적인 모습으로 기록했는데, 구체적으로 우창의 흙으로 쌓은 토대, 거적과 곡식을 쌓아올린 모습, 그 위를 풀로 덮은 것을 상세하게 그리고 있으며,<sup>29)</sup> 봉선고에 대해서도 건물의 모양과 그 기둥에 “貯水防火”라는 방문이 있다는 등을 묘사하고 있다.<sup>30)</sup> 이에 반해 고려로부터 들은 창림과 부고에 관한 제도와 그 외의 용문창·대의창·해염창·상평창 등의 위치나 쓰임은 간략하게 언급하는 데에 그친 것을 보면 서궁이 본 것과 들은 것에 대한 기록의 차이가 분명히 드러난다. 우창의 위치는 內城이라는 것 말고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봉선고는 광화문 동쪽에 위치했고 하니, 서궁이 광화문을 지나들면서 볼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즉, 관부의 공간 대부분은 특별하게 목적으로 가지고 방문한 것은 아니며, 대체로 행로 중 들리거나 외부에서 위치를 보고 관련 내용과 정보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권16의 사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사우에서는 관부외는 달리 송 사신단이 제례를 목적으로 방문한 유관지와 행로 중 들린 곳이 구분된다. <표 3>은 권17의 사우 목록을 정리하고 유관의 성격을 구분한 것이다.

<표 3> 『고려도경』 권17, 사우의 위치와 유관 목적 구분

	공간	위치	공간 묘사	구분
1	복원관	왕부 북쪽, 대화문 안	[외부] 문, 榜 [내부] 三清像	행로
2	안화사	왕부 동북쪽, 산행 3~4리, 관도 남쪽 옥륜사를 지나쳐 수십보	[외부] 오가는 길 [내부] 淸軒亭, 漣漪亭, 山門閣, 紫翠門, 능인전 등	의례
3	보계사	왕부 남쪽, 태안문 안, 북쪽 백여보	[외부] 사액, 榜 [내부] 나한보전, 양무, 탑, 법당, 승방, 종	의례
4	흥국사	광화문 동남쪽 길 옆	[외부] 오가는 길, 문, 榜 [내부] 법당, 정전, 번간	행로
5	국청사	서교정 서쪽 3리	[외부] 건물, 경치, 승려	행로

29) 『고려도경』 권16, 관부, 창림.

30) 『고려도경』 권16, 관부, 부고.

6	왕부내외제사	홍왕사	국성 동남쪽 장패문 밖 2리 시내[溪]	[내부] 협저불상, 장경, 그림	행로
		홍원사	홍왕사 서쪽		행로
		승화사	장패문 안 시내 북쪽		행로
		용화사	장패문 안 시내 남쪽		행로
		미타사·자씨사	용화사 뒤 산 사이		행로
		승교원	회빈문 안		행로
		보제사·도일사·금선사	태안문 안 삼각 모양으로 위치		행로
		봉선사·미륵사	관도의 북쪽 유암산		채록
		대불사	유암산 서쪽		채록
		법왕사·인경사	왕부 동북쪽 춘궁 근처		행로
		구산사·옥륜사	대화북문으로 들어가, 안화사 가는 길		행로
		광진사	장작감 동쪽		행로
		보운사	장경궁 남쪽		행로
		홍호사	승인문으로 나가 정동쪽		행로
		7	승산묘	송악산 병부→북쪽→구산사→복원관→북창문	
8	동신사	선인문 안	[외부] 건물, 廊廡, 榜 [내부] 가려진 神象	의례	
9	합룡굴사	급수문 위쪽	[외부] 건물, 神像	의례	
10	오룡묘	군산도 객관 서쪽 봉우리 위	[외부] 건물, 그림	의례	

사우의 항목은 모두 10개이며, 그 가운데 하나의 공간을 별도의 절목으로 구성한 곳은 복원관, 정국안화사, 광통보제사, 홍국사, 국청사, 王府內外諸寺, 승산묘, 동신사, 합굴룡사, 오룡묘이다. 이 가운데 합굴룡사는 급수문에 있는 사당이며, 오룡묘는 군산도에 있고, 나머지 사우는 모두 개경 내외에 있는 공간이다. 관부와 마찬가지로 사우에서도 왕성 내외의 여러 사원으로 상당수의 사찰을 싣고 대략적인 위치 등의 정보를 기록했다. 이 사찰들의 건물 모습 등은 거의 묘

사되지 않고, 절의 이름과 위치, 간략한 풍경만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들은 서공이 직접 가지 않고, 지나가면서 본 곳이거나 고려 관원에게 듣고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사우에서는 송 사신단이 제례를 위해 방문한 송산묘, 안화사, 보제사, 동신사가 다른 공간과 뚜렷하게 차이를 보이며, 복원관, 흥국사와 같이 행로 중 들러본 경우, 국청사와 같이 원거리에서 보고 내용을 서술한 경우를 구분할 수 있다. 즉, 사우 역시 기록의 내용에 따라 직접 방문한 곳과 그렇지 않은 곳, 들은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국청사는 송 사신단이 직접 방문하지 않은 곳이지만 별도의 항목으로 만들어졌다. 서공은 국청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국청사는 西郊亭 서쪽 3리가량 떨어진 곳에 있다. 긴 행랑과 넓은 집에 높은 소나무와 기석이 서로 비치며 둘러 있어 경치가 맑고 수려하다. 곁에는 石觀音이 벼랑 아래 준엄하게 서 있다. 근래에 사절이 지나가는데 국청사의 문을 지나갈 때 褐衣 차림의 승려 110여 명이 무리 지어 나와 구경을 하였다.<sup>31)</sup>

국청사는 선종 대에 인예태후에 의해 창건된 절이다. 의천과 천태종 부흥에 관련하여 중요한 사찰 중 하나이면서 인예태후의 진전사원이기도 했기 때문에 개경 내외의 사찰 가운데 상당히 중요한 사찰로 꼽힌다. 그러나 서공의 글을 보면 송 사신단이 이곳을 방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의 사료에서는 국청사 내부에 대한 내용 없이, 국청사의 풍경과 문 앞에 나와서 사신단을 구경하고 있던 1백여 명의 승려들을 묘사하고 있다. 국청사는 서교정에서 서쪽으로 3리 가량 떨어져 있었는데, 서교정은 선의문에서 5리 밖에 위치했다고 하니,<sup>32)</sup> 개경에서는 대략 8리 거리에 위치했을 것이다. 서교정은 송 사신단 뿐 아니라 요·금의 사신이 개경을 드나들 때 지나가는 곳이기도 했다.<sup>33)</sup> 서교정에서는 사신단이 떠날 때 별도의 행사가 치러졌다. 국왕이 국상을 보내 서교정에 음식과 술을 차리고,

31) 『고려도경』 권17, 사우, 國淸寺 “在西郊亭之西 相去三里許 長廊廣廈 喬松怪石 互相映帶 景物淸秀 側有石觀音 峭立崖下 頃人使所過 道經國淸寺門 其褐衣僧徒百十輩 群出觀之”

32) 『고려도경』 권27, 관사, 서교정.

33) 『고려사』 권64, 국휼, 인종 5월 갑오.

술이 15차례 돌면 마쳤다고 하니,<sup>34)</sup> 쉽게 볼 수 없는 구경이었기 때문에 승려 무리가 나와 보고 있었던 듯하다. 이러한 승려의 모습과 큰 규모를 갖추고 있었던 국청사가 서공의 눈에 띄었을 것이다.

그리고 흥국사의 경우도 별도의 항목으로 구성했으나, 제례와 같은 뚜렷한 목적이 보이지는 않는다. 서공은 흥국사에 대해 광화문 동남쪽 길가에 있다고 하면서 입구와 건물, 번간의 모양을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다.<sup>35)</sup> 아마 직접 들어가 보았던 것으로 보이며, 개경 내 왕부나 다른 유관지를 지나는 중 들렀던 것 같다. 흥국사는 태조 대에 창건된 절로 팔관회를 맞이하여 국왕이 행차했던 사원 중 하나이며,<sup>36)</sup> 기우제 등의<sup>37)</sup> 국가 의례 등이 시행되었던 곳이다. 절의 위치상 송 사신단이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서공을 비롯한 송 사신단은 한 달 남짓의 개경 체류 동안 순천관 내에서 설행된 수 차례의 연회, 회경전을 비롯한 궁궐 전각에서 이루어진 受詔·제전·조위 의례, 배표례와 문전 등의 일정, 안화사 방문, 승산묘·동신사·보제사 제례 등 별도의 의례 일정을 소화했다. 순천관에서 이루어진 연회를 제외하고 나머지 일정에서는 목적지 주변이나, 이동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개경 유관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송 사신단이 이동하는 동안 함께한 고려 관원은 행로를 결정하고, 때에 따라 내부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했던 곳, 예를 들면 흥국사나 우창, 봉선고 등과 같은 장소를 안내하고 고려의 제도나 규정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고려 내에서 중요한 장소에 송과의 외교적 성격이 덧대어지기도 하고, 송과의 관계로 인해 중요성이 부각된 공간도 있었을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개경 유관지 가운데 고려와 송의 외교 관계가 드러나는 주요한 공간의 성격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34) 『고려도경』 권26, 연례, 서교송행.

35) 『고려도경』 권17, 흥국사 “在廣化門之東南道旁 前直一溪 爲梁橫跨 大門東面 榜曰興國之寺 後有堂殿 亦甚雄壯 庭中立銅鑄幡竿 下徑二尺 高十餘丈 其形上銳 遂節相承 以黃金塗之 上爲鳳首 銜錦幡”

36) 『고려사』 권6, 정종 7년 10월 기축; 『고려사』 권7, 문종 7년 10월 기유; 『고려사』 권10, 선종 4년 10월.

37) 『고려사』 권9, 문종 36년 5월 경자; 『고려사』 권12, 예종 2년 5월 경자; 『고려사』 권13, 예종 7년 5월 을축; 『고려사』 권14, 예종 16년 5월 계해.

### 3. 개경 游觀 공간의 외교적 활용과 성격

#### 1) 고려와 송의 외교 기념 공간

송 사신단은 개경에 머무는 동안 순천관을 출입할 때마다 그 옆 순천사에서 “국신사와 부사 일행이 평안하길 빈다[以祈國信使副一行平善]”는 방을 보았고, 한 달 동안 승려들이 밤낮으로 고려와 송의 관계를 위해 부르는 범패를 들었다. 서공은 이에 대해 “대개 마음에서 우러난 진실이며, 한 때의 거짓으로 꾸민 것은 아니다[蓋由衷之信 非一時矯僞也].”라고 생각했지만, 고려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 객관 옆의 사찰에서 밤낮으로 범패를 불렀다는 서공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고려가 순천관 옆 사찰에서 사신단을 위한 방을 붙이고 범패가 들리도록 한 것은 송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조성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있었을 것이다. 나아가 송 사신단이 개경에서 유관하는 목적지와 행로, 공간에 대한 설명에도 고려의 의도가 자연스럽게 녹아 있을 수밖에 없다.

당시 고려와 송은 외교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었다. 고려는 송의 북방지역 견제를 위한 연대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예종 대에 거란 연호 사용을 중지하고 송과 사행이 오가는 중에도 송의 책봉을 받지 않는 외교 상황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종이 사망하고 인종이 즉위한 이듬해(1123)에 파견된 사신 노윤적과 부사 부목경은 인종에게 송으로 책명을 청하도록 권유했으나 고려는 인종의 상중임을 이유로 확답하지 않는다.<sup>38)</sup> 고려는 이미 예종 대 여진정벌 실패를 거울삼아 그 성장을 경계하며, 금을 옛 여진으로 대할 수 없음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송이 여진[금]과 연합하여 거란을 공격하고자하는 정치적 의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송-거란-여진[금]의 관계 추이를 두고 보면서 외교 방향을 결정해야 했다.

즉, 인종 원년 고려는 금으로의 사대를 결정하지 않은 채, 국제 정세를 관망하

38) 『고려사』 권15, 인종 원년 6월 계묘. 송의 책봉 제의와 고려의 거절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 이미지, 2018 『태평한 변방: 고려의 對거란 외교와 그 소산』, 경인문화사, 310면; 김보광, 2016 『12세기 초 송의 책봉 제의와 고려의 대응』 『동국사학』 60, 75-76면.

면서 외교 노선을 정하기 위해 여러 방향의 외교 통로를 열어두어야 했다. 송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유지하면서도, 선불리 책봉관계를 맺어 거란의 침입 때와 같이 전쟁의 빌미가 되어서는 안 되었다. 그 때문에 송 사신의 접대는 송의 책봉 제의는 거절하되, 소통 통로는 열어두고, 최대한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면서 진행되었다. 송 사신단의 개경 유관 행로와 공간은 그러한 외교적 목적에 부합한 장소로 선택되었을 것이다. 더불어 이동하면서 설명하는 내용 역시 송과의 관계를 부각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고려 입장이 가장 잘 반영된 공간이 바로 안화사이다. 안화사는 예종대에 중수된 사찰로서 건설단계에서부터 상당한 공을 들였던 절이다. 예종은 안화사가 완공된 이후 낙성식에 친히 행차하고, 송으로 파견되는 사신 편에 송 황제의 글씨[御書]를 요청했으며, 이에 휘종은 ‘能仁之殿’이라는 편액을 쓰고, 태사 채경에게도 ‘靖國安和之寺’라는 편액을 쓰도록 했으며, 이와 함께 16나한도 하사했다.<sup>39)</sup>

서궁도 휘종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인지 안화사에 대한 기록을 상세하게 남기고 있다. 안화사는 왕부 동북쪽으로 산길을 따라 3-4리에 위치한 곳이며, 관도 남쪽의 옥륜사에서 수십보를 가서 길을 따라 들어가면 경내로 진입할 수 있다고 한다. 서궁은 시내를 가로지르는 다리와 건너편 언덕의 청현정·연의정이라는 정자를 지나, 골짜기 속 산문각 등 안화사 권역으로 들어가는 길에 대해서 아름답게 묘사하고, 이어 휘종과 채경의 흔적이 있는 공간을 설명했다.

① 사찰의 현판은 곧 지금의 태사 채경의 글씨이다. (중략) 조금 북쪽에 있는 紫翠門으로 들어가고, 다음에는 神護門으로 들어간다. (중략) 가운데에는 무량수전이 세워져 있고, 그 곁에 두 누각이 있는데 동쪽의 것을 ‘陽和’라 하고 서쪽의 것을 ‘重華’라 한다. 이 뒤로부터 세 문이 늘어서 있는데 동쪽 것을 ‘神翰’이라 하며, 그 뒤에 전각이 있는데 ‘能仁’이라 한다. 전각의 두 현판은 현재의 황제[휘종]가 내린 御書이다. (중략) 고려인들은 천자의 어필과 글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더욱 엄숙하게 받든다. 지금 사절이 그 곳에 가서 삼절의 관속과 종리를 거느리고 어서전 아래에서 배례하였다. 그리고 飯僧하며 복을 빌고, 날이 저물어 관사로 돌아오니, 이때가 선화 5년 7월 2일 계축이었다.<sup>40)</sup>

39) 『고려사』 권14, 예종 13년(1118), 4월 임신.



② 오직 안화사의 것에 ‘大宋皇帝聖壽萬年’이라 쓰여 있다. 그들이 마음을 기울여 송축하는 뜻이 성심에서 나온 것을 보니, 聖朝로부터 총애와 회유를 두텁게 받는 것도 마땅한 일이다.<sup>41)</sup>

위의 사료는 『고려도경』 안화사 내용에서 송과 관련한 부분을 정리한 것이다. ①은 정국안화사 내용 가운데 송과 직접적으로 관련한 부분이며, ②는 흥국사의 번간을 설명하면서 안화사의 내용을 덧붙인 것이다. 서공의 발길을 따라 안화사 내부를 송의 기념물을 중심으로 확인하다보면, 안화사 입구에서부터 송과의 우호적 관계가 강조된다. 먼저 산길과 시냇물을 끼고 걸다가 안화문으로 들어오면, 번간이 세워져 있어 그 공간이 안화사임을 알리는데, 그 번간에 ‘大宋皇帝聖壽萬年’이라고 쓰인 비단 깃발이 장식되어 있다. 그리고 송 대사 채경이 쓴 ‘靖國安和之寺’라는 편액으로 본격적인 안화사가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곳을 지나 북쪽으로 가면 자취문과 신호문을 차례로 거치고 가운데에는 무량수전이 있으며, 그 뒤로 문 세 개가 늘어서 있는데, 동쪽부터 신한문, 선법문, 효사문이 있다. 그 중 동쪽 신한문으로 들어서면 전각이 보이고, ‘能仁之殿’이라는 송 휘종이 하사한 편액이 걸려있다. 사신단은 “御書殿” 즉 능인전에서 배례를 했다. 다음으로 飯僧을 행하며 복을 빌었고, 날이 저물어 돌아왔다고 한다.

이와 같이 안화사 내부 곳곳에는 對宋 외교의 기념물이 비치되어 있었다. 사찰 현판을 쓴 채경은 송 휘종이 상당히 중용했던 인물이며, 예종 13년(1118)에는 세 번째 재상직에 올랐던 시기였다.<sup>42)</sup> 휘종은 채경을 등용하여 신종과 왕안석의 신법정책을 이어받아 시행하고자 했으며,<sup>43)</sup> 채경에 대해 한 고조의 소하와

40) 『고려도경』 권17, 사우, 정국안화사 “寺之額 卽今太師蔡京書也 (중략) 又少北入紫翠門次入神護門 (중략) 中建無量壽殿 殿之側 有二閣 東曰陽和 西曰重華 自是之後 列三門 東曰神翰 其後有殿 曰能仁 殿二額 寔今上皇帝所賜御書也 (중략) 麗人 以奎章睿藻在焉 奉之尤嚴也 今使者至彼 率三節官屬從吏 拜于御書殿下 飯僧祈福 日莫歸館 實宣和五年七月二日癸丑也”

41) 『고려도경』 권17, 사우, 흥국사.

42) 예종 13년(1118)은 채경이 세 번째로 재상직에 올랐을 때이며, 비록 실권은 그 이전보다 약화되었지만, 외견상 권력의 절정에 오른 상황이었다(李玠奭, 1996 『宋 徽宗代 紹述新政의 挫折과 私權的 皇權強化』 『동양사학연구』 3, 118면).

43) 李玠奭, 1996 위의 논문, 83-84면.

같은 인물로 비견하기도 했다.<sup>44)</sup> 채경은 황제의 지지를 받기도 하고, 견제를 받아 실각하기도 했으나, 휘종 대에 증용된 인물임에는 틀림이 없다.

휘종과 채경의 글이 안화사에 있었기 때문에 송 사신단이 이곳을 방문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었다. 서공은 안화사에 대해 상당한 호평을 내리고 있는데, 휘종의 어서가 있기 때문에 고려인이 안화사를 엄숙하게 받들며, 특히 송 황제의 성수를 비는 것은 고려인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난 것으로 이로써 고려가 성조의 총애를 받을 만하다고 남겼다.<sup>45)</sup> 서공의 감상평은 송 사신으로서 느낀 것 그 대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고려인에게 안화사는 황제의 어서를 봉안한 절의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인종 원년 당시 안화사는 예종의 진전사원으로서 소장재를 행한<sup>46)</sup> 공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전 예종 13년에 사망한 문경태후(순덕왕후)의 진전사원이기도 했다.<sup>47)</sup> 서공은 안화사를 설명하며 서쪽에 왕이 행차할 때 사용한다는 齋宮이 있다고 했는데<sup>48)</sup> 이는 순덕왕후와 예종의 진전 사원으로서 인종이 행차할 때 사용한 장소였을 것이다. 즉, 안화사는 예종과 문경태후의 진전사원으로서 예종에 대한 기념 공간의 의미가 고려인에게 더욱 강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예종이 안화사 중수를 기념하여 송에 글씨를 요청하고 이를 받아들인 휘종과 채경이 쓴 편액을 걸어둔 것은 송 황제에 대한 존중 뿐 아니라 예종 대 이루어진 고려의 대송 외교에 대한 기념의 의미도 가지고 있었다. 고려는 이 공간에 송 사신단을 데려가 고려가 송의 외교 기념물을 잘 보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번간에 송 황제를 위한 글을 걸어 놓아 고려가 송을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외교 공간으로서 적극 활용했다.

다음으로 살펴 볼 유관지는 복원관이다. 언제 세워진 것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예종 대 처음으로 기록이 나타나고 서공이 정화연간에 세웠다고 하므로 예종 대 지어진 것은 분명하다. 복원관은 복원궁으로 불렸던 도교 사원으로 개

44) 李玠爽, 1996 위의 논문, 94면.

45) 『고려도경』 권17, 사우, 정국안화사.

46) 『고려사』 권15, 인종 원년 4월 기사.

47) 『고려사』 권14, 예종 15년 6월 정해.

48) 『고려도경』 권17, 안화사.

경 태화문 안에 있다고 하는데, 안화사·구산사와 가까이에 위치해 있어 복원궁·구산사·안화사를 하루에 돌아볼 수 있었던 듯하다.<sup>49)</sup> 또한 왕륜사와도 가까이에 있었는데, 뒷 시기이긴 하지만 공민왕 17년에 왕륜사 영전과 불우가 협소하여 고쳐짓기 위해 복원궁으로 가서 터를 살펴봤다고 한다.<sup>50)</sup> 이를 보면 복원관과 왕륜사도 근거리에 위치했음을 짐작하게 한다.

다음은 서공이 남긴 복원관에 대한 기록이다. 서공은 『고려도경』 권17의 사우편 첫 절목을 복원관으로 시작했다.

(복원관) 앞에는 ‘敷錫之門’이라는 방이 있고, 그 다음에는 ‘福原之觀’이라는 방이 있다. 예전에 듣기로는 전 안에 三清像을 그렸는데 노자[混元皇帝]의 수염과 머리카락이 모두 검색이어서 우연히 황제[聖朝, 휘종]가 노자[眞聖]의 모습을 그린 뜻에 부합되니 또한 가상하고 할 수 있다. 예전에는 고려 풍속에서는 도교의 가르침[虛靜之教]을 듣지 못했는데, 이제는 사람마다 모두 알고 귀의하여 믿는다고 한다.<sup>51)</sup>

위의 사료는 복원관에 대한 서공의 기록이다. 복원관의 모습에 대해서 서공이 인상을 크게 받은 것 같지는 않으며, 복원관 내부 곳곳을 둘러 본 것도 아닌 듯하다. 위치와 부석문, 복원관의 방만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삼청상 그림 역시 직접 본 것이 아니라 들었다고[嘗聞] 하므로 전각 내부를 보지 못한 것이 분명하다. 삼청상이 있는 전각 이름이 삼청전인데, 서공이 말한 그림은 아마도 그 전각 내부에 있었을 것이다. 의종 대에 삼청전 안에 소종이 올렸다는 기록이 있는데<sup>52)</sup> 그림과 소종 등이 삼청전 내부를 장식했던 것 같다. 서공의 다른 기록과 비교해 볼 때, 서공이 만약 복원관 내부를 직접 보았다면 보다 상세한 묘사나 설명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복원관은 서공을 비롯한 송 사신단의 목적지는 아니었다. 송산묘나 안화사를

49) 『고려사』 권14, 예종 16년 12월 신축.

50) 『고려사』 권41, 공민왕 17년 5월 임진.

51) 『고려도경』 권17, 사우 “(福源觀) 前榜曰敷錫之門 次榜曰福原之觀 嘗聞殿內繪三清像 而混元皇帝鬚髮皆紺色 偶合聖朝圖繪眞聖貌像之意 亦可嘉也 前此國俗 未聞虛靜之教 今則人人咸知歸仰云”

52) 『고려사』 권53, 五行1, 水, 鼓妖, 의종 3년 11월 갑신.

가는 길에 있었던 듯하며, 둘 중 승산묘의 행로에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안화사와 복원관이 가깝다고 했으나, 서궁이 승산묘 가는 길을 설명할 때 구산사와 복원관을 지나 북창문으로 나가야 한다고 했으니, 아마 사신단은 길을 따라 태화문 방향으로 가다가 서쪽으로 길을 틀어 북창문으로 나갔던 것 같다.

서궁이 직접 방문한 곳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려도경』 사우 편 의 첫 머리는 복원관으로 시작한다. 이것은 개경 내 유관지 가운데 복원관의 중요도나 목적을 이유로 한 것은 아니다. 『고려도경』에서 권의 주제와 항목을 구성하는 것은 사행 여정에 따르는 것과 송 사신단에 속한 서궁 자신이 생각한 중요성을 고려했을 수밖에 없다. 즉, 개경 내 사신단이 보고 듣고 가는 유관지 가운데 도교를 중시한 휘종의 입장을 반영한 구성인 것이다. 휘종은 도교에 대한 신앙을 강조하면서 궁관 건축을 위해 대대적인 토목사업을 벌이고 스스로를 教主道君皇帝로 책봉했으며, 불교를 탄압하고 학교에서도 도교 경전을 학습하게 했다.<sup>53)</sup> 그 외에도 휘종은 즉위 후, 불교가 천체를 귀신의 서열에 놓은 것은 신을 모독한 것으로 보고 대관 원년(1107)에 도사의 서열을 승려보다 우위에 두는 조치를 취했고, 지금의 황제가 人主로서 상제가 직접 강림한 것이라는 천신강림설을 주장한 도사 임영소를 우대했다. 물론 선화 원년(1119)에 임영소가 몰락하자 폐지한 불호와 승니의 칭호를 복원했으니<sup>54)</sup> 휘종 대에는 다른 것보다 도교가 우선시 되었던 것은 분명하다.

같은 시기 고려에서도 도교는 정치적으로 중요하게 활용되었다. 복원관이 만들어진 것도, 초례가 다수 설행된 것도 대개 예종 대에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예종 대 도교 수용은 의례를 통하여 왕의 위상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12세기 초 이래 사회경제적 모순, 민심수습·민생구제 차원에서 추진한 것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송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sup>55)</sup> 이에 대해서 서궁도 예종의 도교 정책에 송의 영향이 있었음을 언급했다. 고구려에서부터 도교가 전해졌으며, 대관·정화연간에 고려로 도사가 파견되었다는 것을 서술하면서<sup>56)</sup> 복원관을

53) 李玠奭, 1996 위의 논문, 113면.

54) 구보타 료온(최준식 옮김), 1990 『중국 유불도 삼교의 만남』, 민족사, 217-220면.

55) 채웅석, 2008 『고려 예종대 흥기의 정치적 성격』 『한국사연구』 142, 115-116면.

56) 『고려도경』 권18, 도교.

운영하는 데에 송에서 파견된 도사들의 역할이 있었음을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앞서 복원관 설명에서도 내부에 그려진 혼원왕제의 모습이 휘종이 노자[眞聖]의 모습을 그린 뜻에 부합된다고 한 것을 보면, 고려에서 송사신단의 목적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행로 중에 위치한 복원관을 송 사신단에게 보여주고, 이에 설명을 더한 것은 고려의 도교 시설에서도 송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을 송 사신단과 휘종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생각한다.

다음으로 고려와 송의 관계에서 기념할만한 유관 공간은 약국이다. 고려와 송이 사행을 재개한 문종 대의 외교 명분은 국왕의 風痺를 치료하기 위하여 의관과 약재를 구하는 것이었다.<sup>57)</sup> 문종 대 이후에도 몇 차례 의관을 요청한 사례가 있다. 서경 역시 송의 의관이 머물렀던 객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sup>58)</sup> 문종 대 이후에도 숙종과 예종 대에 의관을 요청하고, 송에서 의관을 파견하여 일정 기간 머무르며 교류가 이루어졌던 것이다.<sup>59)</sup>

이때의 의관들은 단순히 의학 교류를 위한 것 외에도, 거란을 견제하기 위한 양국 외교교섭의 메신저로서 활동했다.<sup>60)</sup> 고려는 때에 따라서 치료의 목적보다 외교적 목적으로 의관을 요청하고 고려의 외교적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sup>61)</sup> 즉, 문종 대부터 예종 대까지 고려와 송을 오간 의관은 양국 외교의 내밀한 교섭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선화 무술년에 사신이 와서 표장을 올려 의관[醫職]을 파견하여 교관[訓導]으로 삼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황제가 그 요청을 받아들여 남줄 등에게 고려로 가도록 명령했고, 2년 뒤에 귀환하였다. 이때부터 의학에 정통한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에 보제사 동쪽에 약국을 세우고 세 등급의 관원을 두었다.<sup>62)</sup>

57) 『고려사』 권9, 문종 32년 6월 갑인, 7월 을미.

58) 『고려도경』 권27, 관사, 객관.

59) 『고려사』 권9, 문종 26년 6월 경술; 문종 27년 8월 정해; 문종 32년 6월 을미; 문종 33년 7월 신미; 문종 34년 7월 정묘; 『고려사』 권12, 숙종 8년 6월 갑인.

60) Oongseok Chai, 2017 *Interstate Relations in East Asia and Medical Exchanges in the Late Eleventh Century and Early Twelfth Century*, *KOREAN STUDIES* 41, UNIVERSITY OF HAWAII PRESS, p.38.

61) 『송사』 권487, 외국3, 고려; 김성규, 2014 앞의 논문, 215-216면; Oongseok Chai, 2017 위의 논문, p.39.

위의 사료는 서공이 서술한 약국에 대한 내용의 일부이다. 약국은 보제사 옆에 위치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보제사에 제례를 위해 가는 행로 가운데 약국이 있었던 듯하다. 서공은 고려의 의술이 선화 연간에 의관을 파견하여 교관이 된 이후부터 발전했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서공이 본 약국의 외관은 그다지 훌륭했던 것 같지 않다. 그러나 고려의 입장에서 약국을 지나치지 않고, 서공에게 설명을 덧붙인 것은 그 공간에 대해 송의 영향력을 얻어 송 사신에게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일 것이다.

송 사신단이 방문한 장소 가운데 안화사, 복원관, 약국은 양국의 외교교섭을 상징하는 공간이다. 안화사는 송 휘종을 비롯한 대송 외교의 기념물을 확인하고 배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방문한 장소이며, 복원관과 약국은 목적지는 아니었지만 행로 중에 잠시나마 둘러본 공간이었으며, 송의 입장에서 고려에 대한 문화·사상 분야의 영향력을 기념하는 장소로서 『고려도경』에 기록되었다.

## 2) 송 사신단의 제례 공간

송 사신이 개경에 체류하는 동안 고려 국왕과의 의례, 즉 고려 조정에서 이루어지는 의례를 제외하고 별도로 송 사신단의 제례가 행해졌다. 송 사신단이 제례를 올린 공간은 모두 세 곳으로 송악산의 산신을 모신 송산묘, 동신성모를 모신 동신사 그리고 보제사이다. 이러한 제례 공간은 대송 외교의 기념비적 공간보다 불교, 민간 신앙의 문화적 요소가 강하게 드러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서공은 이와 같은 제례를 모두 ‘舊典’, ‘故事’, ‘舊例’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인종 원년 사신단 외에도 송 사신단이 전례로서 같은 공간에서 제례를 올렸음을 짐작할 수 있다. 제례의 목적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신단이 송에서 출발할 때부터 안전한 항해를 위한 제례를 올리고 있었기 때문에 개경에서의 제례 역시 임무 완수와 무사 귀환을 목적으로 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송에서는 고려로 출발하기 전 변량에서부터 연회와 의례를 설행했는데, 특히 정해현에서는 攄指院, 東海神祠에서 제례를 시행했고, 항해 중에도 招寶山, 沈家門, 寶陔院,

62) 『고려도경』 권16, 관부, 약국 “宣和戊戌歲 人使至 上章乞降醫職 以爲訓導 上可其奏 遂令 藍苗等往其國 越二年乃還 自後 通醫者衆 乃於普濟寺之東 起藥局 建官三等”

海驢焦에서 불교, 민간신앙, 도교 의례를 행하는 것은 물론 귀환 후에는 특정 사묘와 도관의 영험함을 보고하고 봉호와 묘액을 하사하기도 했다.<sup>63)</sup> 또한 고려 영내로 들어온 뒤에도 사신단은 오룡묘나 합골룡사에 들러 제례를 올렸다. 합골룡사와 오룡묘는 모두 용신과 관련한 사우이다. 합골룡사는 급수문 근처로 사신단이 가는 것이 아니라 뱃사공들이 작은 배로 신상을 맞아 제사하는 방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sup>64)</sup> 오룡묘는 군산도 객관 부근으로 서궁이 오룡묘의 건물 모양과 벽의 그림을 설명한 것을 보면 직접 방문한 듯하다.<sup>65)</sup> 이러한 송 명주와 고려 해로 중에 설행된 제례를 고려한다면 개경에서 이루어진 보제사, 송산묘, 동신사에서 의 제례도 사신단의 임무 완수는 물론 험한 항해길의 무사 귀환을 비는 의례였을 가능성이 크다.

송 사신단은 개경에 들어온 지 13일째 되는 날인 26일에 송산묘로 제례를 올리기 위해 순천관을 나섰다. 이 날은 인종에게 조서를 전달하고 예종 혼당에서 제전을 올린 뒤로 조정에서의 중요한 일정이 일단락 된 후라고 할 수 있다. 서궁은 송산묘까지 직접 가지는 못했다. 송산묘가 상당히 깊고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구전에 따라 산 중턱에서 송산묘를 향해 제례를 했다고 한다. 하지만 순천관에서 송악산까지 병부와 구산사, 복원관, 북창문의 행로와 송악산 산길 5리 정도를 가는데, 나무가 울창한데도 성안을 손바닥처럼 굽어 볼 수 있었다고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산 중턱까지는 서궁의 발길이 닿았다고 봐도 될 것이다.<sup>66)</sup>

송산묘의 정확한 위치와 그곳에 모셔진 신이 무엇인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송악산에는 하나의 신사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개성부를 보면 송악산에는 사당이 모두 다섯 개가 있는데, “첫째는 城隍, 둘째는 大王, 셋째는 國師, 넷째는 姑女, 다섯째는 府女”라고 하며, 이 신들이 상징하는 존재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고 전한다.<sup>67)</sup> 고려에서는 대개 ‘송악’에 대한 제례로 기록되어 있으며, 특별히 송악산 안에 위치한 사당의 수와 종류를 구분한 기록은 없

63) 김상범, 2010 『民間信仰의 公認과 擴散』 『역사문화연구』 35.

64) 『고려도경』 권17, 사우, 합골룡사.

65) 『고려도경』 권17, 사우, 오룡묘.

66) 『고려도경』 권17, 사우, 송산묘.

67) 『신증동국여지승람』 권5, 개성부 하, 송악산사.

다. 그 때문에 조선시대에도 고려의 송악산 祠廟가 그대로 유지되었는지, 증감이 있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송 사신단이 송산묘에 제례를 올리게 된 배경은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서궁이 이해하는 송산묘의 의미는 확인할 수 있다. 서궁은 송산신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을 남겼다.

(전략) 고려 사람들이 전하기를 대중상부 연간에 거란이 왕성으로 침입해오자, 그 신이 밤중에 소나무 수만 그루로 변화하여 사람 소리를 내니 적군은 원군이 있는지 의심하고 곧 후퇴하였다. 후에 그 산을 봉작하여 '송(崧)'이라 하고 그 신을 제사지내 받들었다고 한다. 백성들은 재난이나 질병이 생기면 옷을 시주하고 좋은 말을 바치며 기도를 한다.

송 사신단에게 송산묘는 고려가 거란 침입을 물리친 것을 기념하는 공간이었다. 위의 이야기에서 우선 서궁은 고려 사람들이 송악산에 대해 고려를 수호하는 강력한 힘을 가졌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았다. 서궁은 앞서 오룡묘를 설명하면서도 송산신의 별묘가 오룡묘의 서남쪽에 있다고 기록했는데, 이는 송악산과 관련한 민간신앙이 개경 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송산묘는 거란 전쟁에 대한 고려와 송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상징적 공간이 될 수 있었다. 사실 거란과의 전쟁의 결과로 고려는 책봉국을 송에서 거란으로 변경했으며, 그 이후 송과의 외교는 수십 년간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고려와 송은 송산묘를 통해 거란에 대한 견제라는 공동의 외교 입장을 공유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송산묘가 거란 사신에게는 적대적 공간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거란 사신이 개경 유관을 할 때에는 송산묘에 안내되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크며, 설사 송산묘에 대해 묻는다 하더라도 이러한 이야기에 대한 언급과 의미는 철저하게 가려졌을 것이다. 즉, 송산묘는 고려와 송이 거란 전쟁에 대한 정서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의미를 가지며, 송 사신의 제례가 시행되고, 고려 관원이 송악산의 효험에 대해 설명하면서 거란과의 적대적 정서를 강조하는 외교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었다.

송 사신단이 제례를 올리는 공간은 송악산의 산신 외에도 일종의 토착 여신으로 이해할 수 있는 동신성모가 있다. 동신성모를 모신 사당이 바로 동신사인데,



『고려사』에서는 東神堂으로도 기록되어 있다. 송악 동쪽에 있으며,<sup>68)</sup> 선인문 안, 즉 황성 내에 있었던 사우이다.<sup>69)</sup> 희생을 바치고, 술을 부어 제례 올리는 법식은 송산묘와 같다고 했으니, 이 두 공간의 제례 형식이 동일했음을 알 수 있다.

동신사는 宣仁門 안에 있다. 땅은 약간 평평하고 넓은데, 전각 건물은 낮고 누추하다. 廊廡 30칸은 황량하게 수리하지 않은 채로 있다. 정전에는 ‘東神聖母之堂’이란 방이 붙어 있고 장막으로 가려 사람들이 神像을 보지 못하게 했다. 이는 나무를 깎아 여인상을 만들었기 때문인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夫餘의 처인 河神의 딸이라고 한다.<sup>70)</sup>

서궁의 기록을 보면 고려에서 평소에 동신사를 잘 관리하고 있었던 것 같지 않다. 그런데도 송 사신단이 동신성모에게 제례를 올리는 것이 전례로서 시행되고 있었는데, 이는 고려의 민간신앙으로서 일정한 효험을 바라는 기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동신성모는 나무를 깎아 여신상을 만들어 모셨다고 한다. 장막으로 가려놓았기 때문에 서궁이 직접 여신상을 확인하지는 못했다. 동신성모에 대해서 서궁은 하백의 딸이자 주몽의 어머니인 유화라고 들었다[或云]. 그러나 동신성모가 어떤 존재를 상징하는지는 명확하게 말하기 어렵다.<sup>71)</sup> 동신성모에 대해서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는 주몽의 어머니인 유화로 이해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신라의 선도산성모로 이해하는 것이다. 유화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서궁의 서술

68) 『松京廣攷』 권6, 사묘, 동신사.

69) 신안식은 선인문은 황성 동쪽 방향의 문으로 『고려도경』에서 선인문을 나성의 정동향 성문으로 서술한 것을 오류라고 지적했다(신안식, 2000 『고려전기의 축성과 개경의 황성』 『역사와현실』 38, 28-29면).

70) 『고려도경』 권17, 사우, 동신사 “東神祠 在宣仁門內 地稍平廣 殿宇卑陋 廊廡三十間 荒涼不葺 正殿榜曰東神聖母之堂 以帟幕蔽之 不令人見神像 蓋刻木作女人狀 或云乃夫餘妻河神女也”

71) 김부식이 동신성모에 대한 논의가 신라 3성 시조 전승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와는 무관한 독립적 존재로 보았다는 견해(김선주, 2010 『신라 선도성모 전승의 역사적 의미』 『사학연구』 99, 9면), 그럼에도 김부식은 이를 유화라기 보다 선도산 신모로 생각했다는 견해가 있다(채미하, 2016 『한국 고대 신모와 국가제의: 유화와 선도산 신모를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52, 30면).

을 근거로 한다. 서공은 고려를 고구려와 연속성을 가진 왕조로 이해했는데, 기자가 봉해진 것부터 고구려, 발해 및 신라, 고려 왕건으로 그 명맥을 파악하고 있었다.<sup>72)</sup> 이 때문에 흑자에게 동신성모가 유화라고 들었을 때 자연스럽게 고구려의 역사와 연결시켜 이해했을 것이다.

한편 같은 시기 김부식은 동신성모를 선도산성모로 이해했다. 김부식은 두 가지 이야기를 전한다. 예종 5년(1110)에 고려를 방문한 사신 왕양이 동신성모에 제례지내는 글을 직접 남겼고, 그 글에 “현인을 낳아 나라를 처음 세웠다”는 구절과, 예종 11년(1116) 본인이 이자량 등과 함께 사신으로 송에 갔을 때, 송 관반학사 왕보에게 남편이 없이 임신한 황녀가 배를 타고 진한에 도착해 출산한 후에 신선이 되어 선도산에 머물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sup>73)</sup> 동신성모를 선도산성모로 이해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동시대 고려인 김부식의 선도산성모 기록과 송 사신 서공의 유화 기록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동신성모가 과연 누구인지 밝히기보다 고려인 김부식이 송으로부터 파생된 정보를 통해 이를 선도산성모로 이해하는 것과 서공이 고려에 와서 동신사를 보고 유화로 이해하게 되는 정치적이면서도 문화적 요소를 살펴보는 것에 초점을 맞춰보고자 한다.

일단 동신성모에 대해서는 고려에서도 여러 갈래의 이야기들이 존재했던 것은 분명하다. 김부식이 진한에 왔다는 황녀의 이야기를 들은 것이 예종 11년(1116)이며, 서공이 방문한 것이 인종 원년(1123)이므로 7년이라는 짧은 시기에 동신성모의 정체가 변화했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양자가 이야기를 전달하고 강조한 외교적 배경을 확인해 봐야 한다. 예종 대 송에서 한반도에 시조모가 중국으로부터 유래했다는 이야기를 전하는 것은 송이 고려에 대한 외교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을 때이다. 예종 9년부터 11년까지 송에서 악기와 음악과 관련한 예물이 집중적으로 하사되었다. 예종 9년(1114)에 송이 고려에 악기를 하사하고<sup>74)</sup> 이듬해 고려가 문공미 등을 송에 보내 사의를 표하고 학생을 보내 국

72) 『고려도경』 권1, 건국, 始封.

73) 『삼국사기』 권12, 論曰.

74) 『고려사』 권13, 예종 9년 6월 갑진.

자감에 입학하도록 했다.<sup>75)</sup> 예종 11년(1116)에는 송으로부터 돌아오는 사신 편에 대성악을 보내며 풍속을 변화시키는 것에는 이만한 것이 없으며[夫移風易俗莫若於此], 비록 강역이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같이 화합할 수 있다는 뜻을 [雖疆殊壤絕 同底大和 不其美歟]<sup>76)</sup> 피력하고 있다. 김부식은 대성악을 보내준 것에 대한 사은 사신단의 일행으로서 송에 사행을 가게 되었고, 그 곳에서 선도산 성모로 짐작되는 존재에 대해 송으로부터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된다.

이때 고려가 송의 아악을 수용한 것은 고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활용한 것이기도<sup>77)</sup> 하지만 송의 입장에서 중국 문화를 상징하는 아악을 통해 고려의 예악에 영향을 미치고,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김부식에게 시조모에 대한 설화를 전하고 한반도 왕조의 시조가 중국으로부터 전해졌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보인다.

김부식이 본래 동신성모에 대해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는 기록상 확인되지 않지만 『삼국사기』의 신라본기를 논하며 알에서 태어난 시조에 대해 설명하며, 이러한 이야기를 기록한 것은 송 측의 이야기를 완전한 오류라고 단언하지 못했던 것이며, 그 내용을 예종 5년에 와서 동신성모에 대한 글을 남긴 송 사신 왕양과도 연결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의도와는 반대로 서공이 동신성모가 유화라고 이해한 것은 서공의 역사 인식 외에도 동신사의 제례를 시행하면서 이에 대해 설명한 고려 측 인물이 전한 이야기가 있었을 것이다. 인종 원년 김부식은 송 사신단의 접반사로 임명되어 서공을 비롯한 사신단을 수행했다.<sup>78)</sup> 개경 유관 일정을 함께 하지 않았겠지만, 성모에 대해 송과 소통한 경험을 가지고 있음에도 고려 측에서는 동신사에 대해서 김부식의 견해와 달리 이를 유화라고 사신단에게 말한다. 즉, 당시

75) 『고려사』 권13, 예종 10년 7월 무자.

76) 『고려사』 권70, 약1, 아악.

77) 예종은 송으로부터 받은 아악을 종묘와 연회에 연주함으로써 왕실의 권위를 회복하고자 한 것이다(김병인, 2011 『고려 예종의 통치행위에 나타난 유형적 특징과 그 정치적 배경』 『역사와경계』 79, 65면).

78) 『고려사』 권8, 인물, 동접반 통봉대부 상서예부시랑 상호군 사자금어대 김부식.

고려가 동신사를 통해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중국보다는 고구려와 연결된 문화적 요소였을 것이다. 토착적 인물인 유화를 강조함으로써 송과 다른 문화적 배경과 전승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것이다.

또 다른 제례 공간으로는 불교 사원인 보제사가 있다. 보제사는 태안문 안에서 가까이에 위치한 절로 개경 남대가 부근에 위치한 절이다. 보제사는 상당한 규모를 자랑했는데, 나한보전은 왕의 거처를 능가했으며, 정전 서쪽의 5층 탑은 높이가 2백 척이 넘었다고 한다.<sup>79)</sup> 보제사는 천여 채의 건물과 3개의 못, 9개의 우물이 있었다고 하니<sup>80)</sup> 그 규모가 개경 내 절 가운데에서도 손꼽혔을 것이다. 또한, 보제사에는 백동 1만 5천 근을 사용하여 만든 종이 있었는데, 서궁이 듣기에 종소리가 좋지는 않았는지 울려 퍼지지 않았다고 비평하고 있다. 보제사에서 는 불사와 반승을 했는데, 정사와 부사는 불참한 채 의식을 거행했다. 고사(故事)에 따라 예물, 말, 고려에서 정사와 부사에게 준 것, 2필, 은 2근, 꽃과 과일 등을 올리고 의례를 시행했다.<sup>81)</sup>

보제사에서 설행한 제례는 안화사 의례와는 다른 성격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안화사가 예종의 진전으로서 당시 예종 국상 기간이라는 현재적 의미와 함께 예종 대 이루어졌던 대송 외교와 회종을 기념하기 위한 공간으로서의 외교적인 의미가 있다면, 보제사에서 이루어진 제례는 사신단의 활동을 위한 제례로서 송산묘와 동신사와 연결된 의례적 공간으로서의 의미가 강하다고 생각한다. 정사와 부사가 불참한 채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도 의례가 가진 의미가 외교보다는 구례로서 설행하던 제례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수많은 사찰 중 보제사를 택한 것은 송과의 문화적 연결성을 고려했기 때문일 것이다. 서궁이 사우 편에 기록한 개경 내외의 절만 해도 10여 곳에 달한다. 그 가운데에서 보제사는 송 사신을 압도할 수 있는 규모이면서도, 송 승려를 안치했었던 사찰이라는 연관성이 있었다. 현종 원년(1095) 상인 편에 고려에

79) 『고려도경』 권17, 사우, 광통보제사.

80)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 개성부 상, 연복사.

81) 『고려도경』 권17, 사우, 광통보제사.

들어온 송 승려 혜진을 왕이 맞이한 뒤 보제사에 거처를 마련하도록 했다.<sup>82)</sup> 또한 이듬해인 숙종 원년(1096)에는 혜진과 함께 송 승려 성충을 명오삼중대사로 임명했는데,<sup>83)</sup> 삼중대사는 광종 때에는 국사나 왕사로 책봉되기 전의 최고 승계였으며, 승통과 대선사 등이 추가된 후에도 승계에서 높은 지위를 점했다.<sup>84)</sup> 이를 보면 송 출신 승려인 혜진과 성충이 상당히 좋은 대우를 받았으며, 그가 개경에서 보제사를 중심으로 활동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혜진과 성충의 활동 시기에서 20여 년이 지났으므로 보제사에서는 송 승려의 자취가 일부라도 남아있었을 가능성이 있었을 것이고, 이에 송 사신단의 불교 의례가 보제사에서 행해졌을 것으로 보인다. 즉, 송 사신단은 불교와 민간신앙에 기대어 사신 활동과 여로의 안전을 기원하는 제례를 시행했고, 그 가운데 보제사가 송 사신단에 보여줄 만한 큰 규모로서 양국의 불교 교류가 드러나는 사찰이었으므로 송 사신단의 불사 장소로 선택되었던 것이다.

송 사신단의 제례 공간은 송에서부터 시행된 사신단의 제례와 연장선에 있으면서도 고려의 민간 신앙과 불교 문화라는 양국의 문화적 공통성과 차별성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송 사신단은 개경 내에서 제례를 올리면서 고려 문화의 특성을 전해 듣고, 때로는 송과의 문화 교류의 현장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다.

#### 4. 맺음말

12세기 고려는 복잡한 동아시아 국제정세를 관망하면서 송과의 거리는 일정하게 유지한 채 여러 가능성을 가진 외교적 통로를 열어두고 있었다. 송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유지하면서도 책봉을 받지 않은 채로, 여진[금]과 송의 관계 추이를 살피면서 외교적 방향을 정해야 했기 때문이다. 서궁이 송 사신단의 일원

82) 『고려사』 권10, 현종 원년 2월 신묘.

83) 『고려사』 권11, 숙종 원년 9월 무신.

84) 허홍식, 1975 『高麗時代의 國師·王師制度와 그 機能』 『역사학보』 67, 15면.

으로 고려에 도착한 인종 원년은 이러한 고려와 송의 외교적 입장 차가 미묘하게 드러나고 있었을 때이다. 고려가 송 사신단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개경의 경관이라는 고려의 의도가 분명하게 투영되어 있었다. 고려는 순천관의 출입과 사신의 행로를 통제하면서 제한적으로 사신에게 개경 내의 공간을 안내하고 유관하도록 했다.

고려가 선정한 안화사는 고려 예종을 기념하는 공간이기도 했지만, 예종 대 이루어졌던 송 휘종의 외교적 자취가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 곳이기도 했다. 송 사신에게 안화사를 보여줌으로써 고려가 송과의 외교를 중시하고 있음을 드러낼 수 있었다. 복원관 역시 특정하게 목적을 가지고 유관한 공간은 아니었지만, 도교를 불교보다 우위에 놓고 있었던 송의 상황을 알고 고려와 송의 도교 교류를 강조하기 위해 송 사신단에게 행로상에 있던 복원관에 들려 잠시나마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약국 역시 문종 대와 예종 대에 걸쳐 이루어진 의학 교류의 측면을 외교적으로 강조하기 위해 보제사 행로에 잠시나마 설명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고려는 이와 같이 대송 외교의 기념비적 공간으로 송 사신단을 안내함으로써 송이 고려에게 우호적 유대감을 가지도록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다음으로 송 사신단은 구례로서 송산묘와 동신사, 보제사에서 제례를 시행했다. 사신단은 이미 송에서부터 불교와 민간신앙에 기댄 제례를 지속적으로 시행하면서 고려로 들어왔으며, 이러한 제례는 고려 영내의 합굴통사와 오룡묘에서도 시행된다. 개경 송악산의 산신과 동신성모에 대한 제례, 보제사의 불사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제례 공간의 선정에는 고려의 의도가 작용했을 것이다. 송산묘는 거란과의 전쟁에 대한 기억을 공유할 수 있는 곳이었으며, 보제사는 송으로부터 온 승려가 머물렀던 곳으로서 양국의 사회적 문화적 교류의 일면을 볼 수 있는 곳이었다. 동신사는 서궁에게는 고려의 역사를 확인하는 공간임과 동시에 고려에게는 송과 다른 고려의 문화를 보여주는 공간이었다. 즉, 송산묘와 동신사, 보제사는 송 사신단이 고려의 문화를 체험하고, 그 차이를 송 사신단에게 이해시킬 수 있는 공간이기도 했다.

『고려도경』에 기록된 서궁의 시선은 기본적으로 송 사신으로서 고려를 방문한 타자의 시선이지만, 그 시선이 머문 공간은 고려에 의해 선정되고 이해의 틀이

제공된 곳이었다. 고려는 송 사신단의 주요 개경 유관지를 안내하면서 송과의 외교 교섭을 원만하게 진행하면서도 양국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시키고자 했을 것이다. 송 사신단의 개경 유관지는 12세기 고려가 외교를 위해 개경의 공간을 능동적으로 활용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주제어 : 고려, 송, 개경, 관광, 유관, 안화사, 복원관, 약국, 승산묘, 동신사,  
보제사, 외교 공간, 기념비, 의례, 고려도경

투고일(2019. 7. 30), 심사시작일(2019. 8. 16), 심사완료일(2019. 8. 23)

〈Abstract〉

## A Study on Gaegyeong Tourism of Song Envoys and Goryeo's Diplomatic Space Utilization

Lee Seung Min \*

The diplomacy of Goryeo in the first half of the 12th century was the process of careful choices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situation in East Asia. Goryeo had been leaving several diplomatic channels open while observing the complex international situation of East Asia. In particular, it was necessary to watch the chang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Jurchen and Song and set the diplomatic direction, while keeping the connection in amity with Song but not being invested.

The first year of Injong of Goryeo in which Seo Keung arrived in Goryeo as a member of Song's delegation was when the difference of diplomatic position between Goryeo and Song had been subtly revealed. The intention of Goryeo was clearly reflected that is the landscape of Gaegyong that Goryeo wanted to show to Song's delegation. Goryeo restricted visitors access Suncheongwan and the delegation's path, and allowed them to guide and tour the spaces within Gaegyeong.

Anhwasa temple selected by Goryeo was a place to commemorate the King Yejong of Goryeo and it was also a place where the results of diplomatic negotiations with Hwijong of Song during the King Yejong were arranged in places. By showing Anhwasa temple to Song's delegation, Goryeo could express that they value the diplomacy with Song. In order to emphasize the Taoism exchange, they also prepared a brief tour of the Bokwonkwan Palace for the delegation because they knew the situation of Song which had placed Taoism above Buddhism. As they guided the monumental place of diplomacy with Song, it could have made a friendly bond with Goryeo.

The next places were Soongsanmyo, Dongshinsa, and Bojesa where the ritual ceremonies held for Song delegation. Soongsanmyo was the place they could share the

---

\* Post-PhD Fellow, Department of History, Yonsei University.



memories of war against the Kitan, and Bojesa was the place a monk from Song had been stayed and they could find the part of social and cultural exchange of two countries. Dongsinsa was the place that Seo Keung could find out Goryeo's history and, at the same time, Goryeo could show their own culture different with Song. In other words, Soongsanmyo, Dongsinsa, and Bojesa were where Song's delegation could experience the Goryeo's culture, and understand the cultural differences of two countries.

Seo Keung's view written in 『Goryeodokyung』 was basically a stranger's but the spaces where he saw were selected and provided the frame of understand by Goryeo. Goryeo probably wanted to make them understand the cultural differences between two countries and to smooth the diplomatic negotiation with Song, while offering tours of main attractions to the delegation. The Gaegyeong tourists attractions for Song's delegation showed that Goryeo in the 12th century actively used the spaces in Gaegyeong for the diplomacy.

**Key Words** : Goryeo, Song, Gaegyeong, Tourism, Diplomatic Space, Monumentality, Ritual, Goryeodogyong, Xuanhuafengshi Gaolitujiang